

영한 은유 번역 과정 고찰 - 전문가와 학생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 자 경
(이화여대)

1. 서론

은유 번역은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 번역 결과물을 기반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häffner and Shuttleworth 2013: 97-98). 국내에서도 결과물 분석을 통해 많은 은유 번역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김순미 2003; 김순영 2008; 노진서 2007; 동소현 2016; 박윤철 2013; 박지수 2016; 송현선 2015; 신진원, 박기성 2011; 이승아, 배지연 2011; 유선영 2015; 조운익 2013).

하지만 번역 결과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번역 전략이며,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은유 번역은 번역자의 언어적 배경, 문화 및 언어적 차이, 번역의 목적, 장르적 특징, 시간 제약, 제도적 절차 등 많은 요인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Shäffner 2017: 253), 번역 결과물에 나타난 최종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에 영향

을 미친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모국어 방향의 은유 번역 과정에서 번역 경력 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학생 그룹으로 구성된 10명의 참가자가 영어 신문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키스트로크 로깅과 스크린 레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하였다. 은유 번역 과정에서 언제, 얼마나 검색하고 교정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문제 인지와 해결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은유 번역 과정에서의 검색과 교정의 위치, 빈도와 방법에 나타난 전문가와 학생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번역 결과물 기반의 기존 연구 결과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고, 학생이 은유 번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번역 경력과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경력에 따라 은유 번역 결과물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은유 번역 과정이 어떻게 분석되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가 왜 나타났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은유와 번역 경력

번역 경력은 은유 번역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많이 논의되어왔으며(이혜승 2004; Fuertes Olivera 1998; Jakobsen 2007; Jensen 2005; Massey and Ehrensberger-Dow 2017), 번역자의 훈련 여부나 경험에 따라 은유 번역 전략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주로 언급되어왔다.

젠슨(Jensen 2005)은 10년 이상 경력의 번역자와 2년 경력의 번역자, 비전문가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은유 번역 전략을 분석한 결과, 경력에 따라 번역 전략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은 은유로의 번역을 가장 선호하였고 삭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전문가는 그 다음으로 은유로의 번역이 많이 나타났고 삭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비전문가는 즉각적인 대응을 발견하면 은유로 바꾸지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의미를 축소하거나 삭

제하는 전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력의 길이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비전문가에 비해 경력자는 풀어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풀어쓰기보다 은유로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반면, 2년 경력자는 풀어서 쓰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에 따라 경력이 쌓이면서 은유적인 표현 능력 역시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혜승(2004)은 전문가와 학생 그룹으로 나누어 러시아어로 쓰인 정치 연설문의 은유적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검색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의 종류에는 그룹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전 사용 빈도와 유형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은 의미를 찾기 위해 사전을 참조했으나 전문 번역사는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 확인 차원에서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학생은 의미 파악이 어려울 때 사전이나 기타 참고자료에 의존하였고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전문가가 사전 의미를 참고하여 전후 맥락과 번역물의 논리적 전개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텍스트 내에서 은유가 지닌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번역 전략에서도 전문가와 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는 동일 은유로 번역한 경우가 없었고 다른 은유로 바꾸거나 의미를 풀어 번역하였으나, 학생은 동일 은유로 번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메시와 에렌스버거도(Massey and Ehrensberger-Dow 2017)는 번역 전문가와 학사, 석사 학생을 대상으로 은유 번역 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와 학생 모두 동일 은유로 번역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학사와 석사 학생의 경우 그 비중이 더 높았고 그 중에서도 석사가 가장 높았다. 전문가는 풀어쓰기 전략도 일부 나타난 반면, 학생은 이러한 전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회상기술에서 학생은 이해 차원, 전문가는 생산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언급했다.

전문가와 학생이 아니라, 번역 전문가와 주제지식 전문가를 비교한 연구도 있다. 푸에르테스 올리베라(Fuertes Olivera 1998)는 번역 전문가와 번역 비전문가(주제지식 전문가)의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번역 전문가와 달리 비전문가의 경우 그대로 옮기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은유적 표현도 동일 은유로 옮기는 전략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번역 전문가와 통역 전문가를 비교한 연구도 있다. 야콥슨 외(Jakobsen et al 2007)는 번역 전문가와 통역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그룹 모두 은유적 표현의 처리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통역사는 풀어서 옮기는 것

을 더 선호하는 반면 번역가는 은유적 표현으로 옮기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승(2006)은 통번역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번역과 통역 상황의 전략을 비교한 결과, 번역 상황에서는 풀어쓰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은유로 번역하는 전략이 많이 나타났으나, 통역에서는 은유에 설명을 추가하는 전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통역 상황에서는 원문의 비유적 표현을 일단 그대로 옮기고 그 표현에 대한 부가 설명을 간단히 덧붙여주는 해결 방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번역가의 훈련과 경력은 은유 번역 과정에서의 이해와 생산 단계에 쏟는 인지적 노력의 정도, 즉 인지적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은유 번역 전략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 전문가는 가능하면 동일 은유로 번역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은유로 교체하여 번역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풀어서 번역하는 전략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나, 비전문가는 이처럼 차별화된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대로 번역할 경우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그대로 번역하며 심지어 축소나 삭제제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정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2.2 은유 번역 과정

해외 번역학계에서는 TAP, 키스트로크 로깅, 아이트래킹 등 다각화된 방법을 통해 은유 번역 과정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은유적 표현의 번역 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Jakobsen et al 2007; Sjørup 2008; Tirkkonen-Condit 2002; Zheng and Xiang 2014). 은유적 표현을 번역할 때 처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Tirkkonen-Condit 2002), 전문가와 학생에 관계 없이 번역 속도가 느려졌고(Jakobsen et al 2007), 시선을 고정한 시간도 더 길었고(Sjørup 2013), 설문 조사 결과 70%의 참가자가 은유를 번역 어려움을 초래한 큰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Zheng and Xiang 2014).

이에 따라 은유 번역 과정에서 언제, 왜 인지적 부담이 더 커지는지를 파악하려는 탐색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개념적 사상(conceptual mapping)

이 달라지면(Mandelblit 1996; Tirkkonen Condit 2002), 문화적 배경지식이 부족하면(Zheng and Xiang 2014), 은유의 강도(strength)가 크면(원종화 2008), 기계번역을 활용하지 않고 인간이 번역하면(Koglin 2015) 번역자의 인지적 부담이 커지는지, 은유와 번역자 부담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번역물 차원에서 어떤 번역 전략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은유 번역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번역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은유 번역 과정을 살펴본 두 국내 연구(이혜승 2004; 원종화 2008)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연구는 사고발화법(TAP)을 기반으로 정치 담화(연설문과 시사 잡지)에서 외국어에서 모국어(한국어)로 은유적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혜승(2004)은 번역 경력, 원종화(2008)는 은유 강도가 번역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생은 은유적 표현에서 머뭇거리며 시간을 두고 있으나 그대로 번역한 반면, 전문가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고 텍스트 맥락 등을 고려하여 왜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 대안 속에서 선택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이혜승 2004: 173), 은유 강도가 크지만 도착 문화에 낯선 은유일수록 번역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번역 교육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원종화 2008: 222)는 지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도 크다.

다만 두 연구 모두 참가자의 발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검색 과정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인터넷 검색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은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색은 번역 문제에 부딪혔다는 신호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은유 의미를 찾고 맥락 속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커글린(Koglin 2015)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은유 번역의 포스트 에디팅 과정에 투입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첫째, 번역에 소요된 시간적 노력, 둘째, 교정 빈도를 통해 살펴본 기술적 노력, 셋째, 아이트래킹 등 간접적 방식으로 살펴본 인지적 노력, 넷째 번역 도중에 발생한 포즈(pause)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은유 번역 과정에 나타난 검색과 교정 작업은 두 번째 차원의 기술적 노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노력

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학생의 은유 번역 과정을 비교 분석할 경우, 어떤 은유적 표현에서 어떤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지, 즉 ‘언제, 어떻게’의 측면에서 은유 번역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 부담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소요가 더 크거나 긴 시선 고정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비해 번역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교육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 과정에서의 검색과 교정 작업이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판단 하에, 스크린 레코딩과 키스트로크 로깅 데이터를 통해 은유 번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학생이 얼마나, 어떻게 검색과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와 학생의 두 그룹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통번역대학원 졸업 후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번역자 5명과 통번역대학원 번역학과 1학년 재학생 5명이며, 모든 참가자의 모국어는 한국어이다.¹⁾ 실험 전 워밍업 작업을 실시하였고 실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중간 휴식을 가졌으며, 실험은 일대일로 실시하고 참가자가 번역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약 2m 거리에 있었다.

번역 과정은 키스트로크 로깅 프로그램과 스크린 레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록, 분석하였다. 키스트로크 로깅 프로그램은 번역 과정에서 누른 모든 자판, 자판이 입력된 시간, 입력된 순서를 순차적이고 누적적으로 기록해주기 때문에 교정 작업의 확인이 가능하다. 번역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번역학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트랜스로그(Translog)²⁾를 활용하였다. 스

1) 장기간 해외 체류 경험에 관해 질문한 결과, 1년이 넘는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는 없었으나, 학생 중에서 1인은 영어권 국가에서 4년간 체류 경험이 있었다. 대학원 입학 전 상당한 실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실험에 참가한 학생 중 세 명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다른 두 명도 거의 없었다. 전문가 그룹에 속한 참가자의 나이는 40대가 4명, 50대가 1명이었으나 학생 그룹은 20대 1명, 30대 2명, 40대 2명으로 학생 그룹의 연령대가 조금 더 낮았다.

크린 레코딩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움직임을 영상으로 저장하며, 컴퓨터 화면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므로 온라인 자료 검색의 분석에 유용하다고 지적되어왔다(Göpferich and Jääskeläinen 2009: 173). 본 연구는 캄타시아(Camtasi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실험 텍스트는 미-중 무역 갈등을 다룬 246 단어 길이의 텍스트로, 신문 기사(뉴욕타임즈)에서 추출하였다. 신문 기사에는 낯설고 새로운 은유보다는 익숙한 은유가 주로 등장한다. 마승혜(2018: 123-124)에 따르면, 변형된 은유, 신조 은유, 창의적 은유와 같은 비정형화된 표현보다는 주로 죽은 은유, 상투적 은유, 일반 은유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형성이 높은 은유가 신문 기사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의 실험텍스트는 신문기사이므로, 정형화된 은유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연설문, 문학 텍스트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텍스트에서는 정형화된 은유적 표현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 창의적 은유가 아닌 상투적 은유의 번역에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래 표의 밑줄 친 부분이 분석 대상이다.

〈표 1〉 실험 텍스트

Trump's Ace in the Hole(1) in Trade War(2): A Strong Economy(3)

The American economy has picked up speed(4) and is now on course to expand this year at the fastest rate in more than a decade. That acceleration gives President Trump a stronger hand(5) as he contemplates more tariffs and takes an increasingly confrontational approach with China, Canada, Mexico and other trading partners.

As growth slows in Europe, China, Japan and elsewhere, the United States finds itself at the top of(6) the global economy. The United States is also less exposed to the fallout from an escalating trade war(2) since it does not rely on exports as

much as other countries. It all gives Mr. Trump leverage with world leaders, potentially forcing them to make concessions.

But his threats could also backfire(7). Economists warn that the president's clout is limited and that his attacks(8) on the trading system could dampen the outlook not just in other countries but also domestically.

In July, the recovery will reach the nine-year mark, making it one of the longest in modern history. But for much of that time, the engines(9) of the economy were rarely synchronized(10). When consumers were spending at a healthy clip(11) in 2015 and 2016, business investment lagged as energy companies scaled back or abandoned projects in response to a sharp drop in oil prices.

All that has changed in recent months. Now, the different parts of the economy appear to be operating as one well-oiled machine(12).

신문과 잡지 등에서 경제는 ‘전쟁’, ‘기계’, ‘생물’ 은유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권연진 2016: 2), 본 실험 텍스트의 은유도 이러한 은유에 해당된다. 다만 (7), (10)은 엄밀하게 볼 때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데, 해당 표현의 번역 과정에서 은유가 자주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ackfire’는 ‘위협의 화살, 공격의 화살, 역풍, 부메랑’ 등으로, ‘synchronize’는 ‘엔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다’, ‘발맞추어’, ‘빠격대다’ 등으로 번역되었다. 번역 과정의 특성상 실험 참가자나 텍스트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참가자와 짧은 텍스트, 적은 수의 은유적 표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 상황을 고려해⁴⁾ 최대한 더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를 고려해 우선 표현에 따라 나누어 검색과 교정 작업을 살펴본 후에, 검색과 교정 대상, 검색 빈도, 채널, 검색어, 교정 빈도와 교정에서의 검색 활용 여부와 교정 지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 트랜스로그 프로그램은 CRIT(Center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Translation and Translation Technology)연구소의 웹사이트에서 연구자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다운로드한 버전의 프로그램이다(Translog II).

3) 캄타시아 프로그램은 www.techsmith.com/Camtasia.html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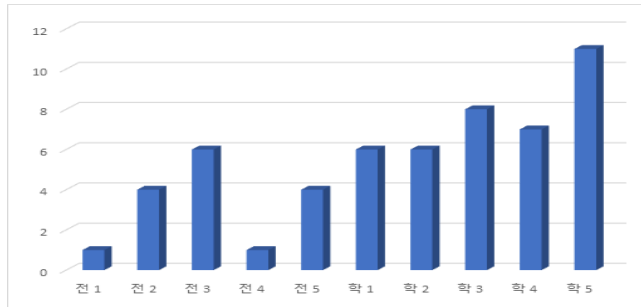
4) 많은 은유 번역 과정 연구에서 2개(Massey and Ehrensberger-Dow 2017), 3개(이혜승 2004), 9개(원종화 2008), 10개(Zheng and Xiang 2014), 12개(Jakobsen et al 2007) 등 대체로 적은 수의 은유적 표현이 번역되는 과정이 다뤄지고 있다.

4. 분석 결과

4.1 검색 및 교정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몇 개를 검색했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검색 대상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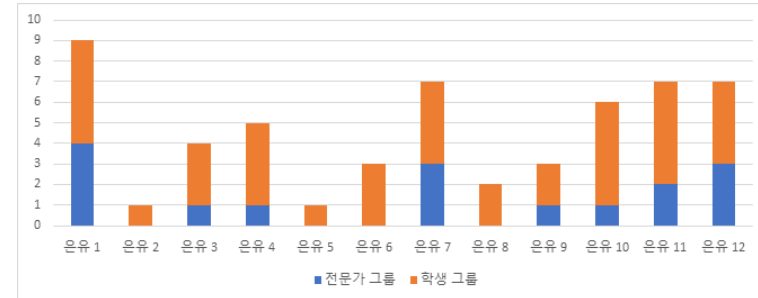


전문가에 비해 학생의 검색 대상이 대체로 더 많다. 전문가의 경우 한 명만 절반 이상을 검색했고 두 명은 검색이 거의 없었지만, 학생은 모든 참가자가 절반 이상을 검색하였으며 특히 한 명은 거의 대부분을 검색했다. 학생은 은유 번역 과정에서 검색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경우 거의 검색을 하지 않는 두 명이 나타났으나, 학생 그룹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참가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 참가자는 모두 최소한 절반 이상의 표현에서 검색을 했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표현에서 검색을 통해 해결하려 시도한 학생도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은유 번역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적 자원 의존도가 전문가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은유 번역 과정에서 검색 의존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 (Massey and Ehrensberger-Dow 2017)와 다르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검색을 했는지를 전문가 그룹과 학생 그룹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검색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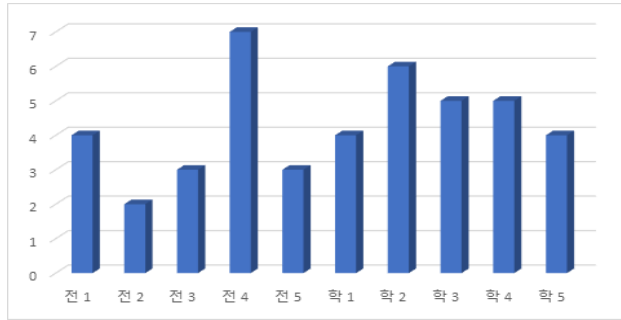


두 그룹의 차이 없이 대부분의 참가자가 공통적으로 많이 검색한 것은 (1), (7), (12)이다. 그 중에서도 (1)의 경우는 전문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가 검색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7), (12)에서 전문가는 세 명, 학생은 네 명 또는 다섯 명 모두 검색을 실시하였다. 학생은 거의 검색하지 않고 전문가는 대부분 검색한 표현은 없었지만, 전문가는 거의 검색하지 않고 학생은 대부분 검색한 표현은 있었는데, (3), (4), (6), (10), (11)이다.

즉, 전문가는 ‘ace in the hole, backfire, well-oiled machine’에만 주로 검색이 나타났으나, 학생은 이 부분 외에도 ‘strong economy, pick up speed, at the top of, synchronized, a healthy clip’에서도 대부분 검색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는 맥락 속에서 풀어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검색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무차별적으로 검색에 나섰다 할 수 있다.

두 그룹 모두 검색이 많지 않았던 것은 (2), (5), (8), (9)이다. ‘trade war, a stronger hand, attack, engine’으로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은 익숙한 은유라 할 수 있다. ‘a stronger hand’를 제외하면 ‘전쟁’, ‘공격’, ‘엔진’ 등 일대일 단어 치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동일 은유로 즉각 옮길 수 있는 경우 외부 자원의 참조 없이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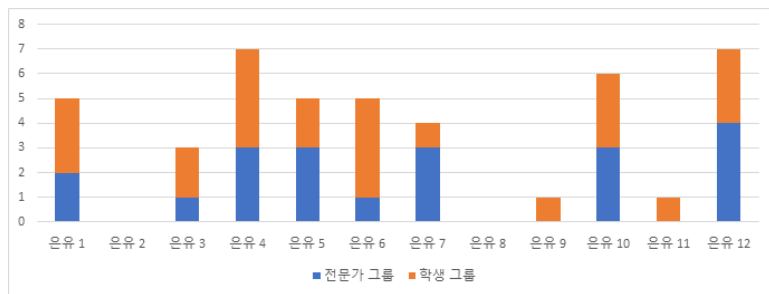
〈그림 3〉 교정 대상의 수



교정 대상의 수는 검색 대상의 수만큼 전문가 그룹과 학생 그룹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 그룹은 참가자에 따른 편차가 적고 모두 4-6개를 교정한 반면, 전문가 그룹은 교정 대상이 두드러지게 적은 참가자와 많은 참가자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참가자에 따른 편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주로 교정이 일어났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교정 대상



그룹 간의 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고친 것은 (4), (10), (12)이다. 즉, 'pick up speed, synchronized, well-oiled machine'에서 전문가와 학생 모두 교정이 많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 그룹은 이 부분에서 검색도 활발했다는 것이다. 학생의 경우 이 세 부분에서 검색과 교정 모두 많았던 반면, 전문가

는 'well-oiled machine'을 제외한 다른 두 부분은 검색 없이 교정만 빈번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 (5)도 비교적 많은 참가자(2-3명)가 교정하여 'ace in the hole, a stronger hand'도 빈번하게 교정 대상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전문가는 거의 교정하지 않았으나 학생은 자주 교정한 것은 (6), 학생은 거의 교정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는 자주 교정한 것은 (7)이다. 결과물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⁵⁾ 번역 과정에서 학생은 'at the top of'에서, 전문가는 'backfire'에서 자주 고쳐 썼다는 것이다. 'at the top of'에서 학생 4명이 교정을 했고 그 중 한 명은 2번, 두 명은 3번이나 고칠 만큼 교정이 잦았다. 'backfire'에서 학생은 모두 검색을 통해 처음부터 '역효과'를 선택했으나, 전문가는 '역풍', '자충수', '반발' 등으로 처음에는 풀어서 번역했다가 나중에 '역효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정이 더 잦았다.

두 그룹 모두에서 거의 교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2), (8), (9), (11)이다. 즉, 'trade war, attack, engine, a healthy clip'에서는 대부분 거의 교정하지 않았다. 'trade war, attack, engine'은 검색도 거의 없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동일 은유로 바로 바뀌 써도 되는 경우에는 교정이나 검색 없이 번역이 즉각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healthy clip'은 대부분 검색을 통해 바로 해결했기 때문에 검색은 빈번했으나 교정은 거의 없었다.

이를 통해 명사에 비해 서술어에서 교정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Chung 2005)은 은유적 표현을 문법적 역할에 따라 나누어보면, 구체적 개체인 명사로 쓰인 경우 그대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쓰인 경우 도착언어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전환되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도 'war, attack, engine' 등에서는 교정, 검색이 거의 없었으나, 'at the top of, pick up speed, synchronized, strong economy, healthy clip' 등 경제의 상태나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식어나 서술어에서 검색, 교정이 많았고, 학생은 이와 같은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술어로 쓰인 은유 번역에 대한 접근 방법이 번역 수업에서 더 충분히, 집중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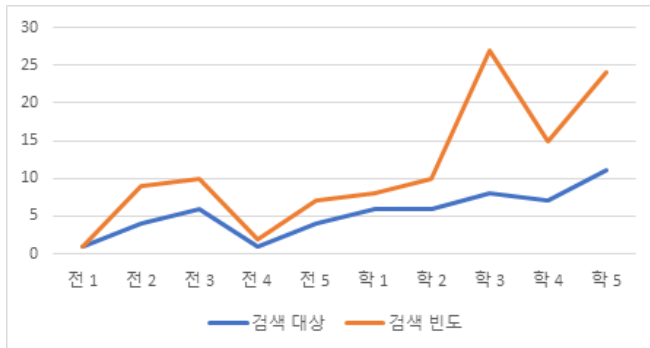
5) 최종 결과물에서는 전문가와 학생 대부분이 'backfire'는 '역효과'로, 'at the top of'는 '정상을 차지하다', '1위를 차지하다', '세계 최고의'라는 표현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사 중에서도 ‘ace in the hole, well-oiled machine’에서는 두 그룹 모두 검색과 교정이 활발했다. 의미 파악이 쉽지 않거나 제목에 포함되어 있거나 일대일 대응어로 즉각적으로 옮기기 쉽지 않거나 해당 표현이 활용된 특정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명사로 표현된 은유에서도 번역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4.2 검색 과정

은유 번역 과정에 나타난 검색 작업을 살펴보기 위해, 참가자에 따라 검색 대상이 된 은유 수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검색을 실시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더 많은 수의 은유를 대상으로 검색을 했을수록 검색 빈도가 높아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된 검색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보기 위해서이다.

〈그림 5〉 검색 대상과 검색 빈도



분석 결과 학생은 전문가에 비해 검색 대상이 좀 더 많은데, 특히 학생 세 명의 경우 검색 대상의 수에 비해서 빈도가 더 확연하게 높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검색 대상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표현을 대상으로 몇 번 검색을 실시했는지, 검색 횟수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참가자에 따른 검색 구성

	검색대상 수	검색 1회	검색 2회	검색 3회	검색 4회	검색 5회	검색 7회
전문가 1	1	1	-	-	-	-	-
전문가 2	4	3	-	-	-	1	-
전문가 3	6	5	-	-	-	1	-
전문가 4	1	-	1	-	-	-	-
전문가 5	4	2	2	-	-	-	-
학생 1	6	4	2	-	-	-	-
학생 2	6	4	2	-	-	-	-
학생 3	7	-	-	6	1	1	-
학생 4	7	1	4	2	-	-	-
학생 5	11	7	2	-	1	-	1

전문가 그룹에 비해 학생 그룹은 하나의 검색 대상을 다시 검색한 경우가 더 빈번하다. 전문가가 두 번 이상 검색한 경우는 31%(16번 중 5번)에 그쳤으나, 학생은 58%(38번 중 22번)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비해 학생은 하나의 은유를 대상으로 두 번 이상 검색하는 경우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두 명(2, 3)은 다섯 차례의 검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한 번만 검색이 나타난 반면, 학생 두 명(3, 4)은 대부분 두 번 이상 검색을 하고 있다. 학생은 대응어를 찾고 확인하는데 검색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 3은 ‘트럼프 굳건 경제,’ ‘트럼프 경제 정책,’ ‘트럼프 강한 경제’를 이어서 검색하거나, ‘미국 경제 잘 굴러가다,’ ‘미국 경제 굴러가다,’ ‘경제 굴러가다,’ ‘경제 작동하다’를 연달아 검색하고, ‘소비 성장’을 검색한 뒤에 ‘소비 증가’를 검색하고, ‘미 경제 회복’을 검색하고 바로 ‘미국 경기 부양’을 검색하는 등 서치엔진에서 검색어를 일부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확인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도 ‘공격의 화살’을 찾고 ‘위협의 화살’을 찾거나, ‘강한 경제’를 검색한 후 ‘양호한 경제’를 다시 찾고, ‘경제에 가속도가 붙다’를 검색한 뒤 ‘경제의 가속화’를 다시 검색하고 있다. ‘미국 경제 통합,’ ‘미국 경제 원동력이 통합되지,’ ‘미국 경제 원동력이 통합,’ ‘경제 원동력이 통합’ 등 표현을 찾기 위해 검색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표현을 찾고 적절성을 확인하는데 검색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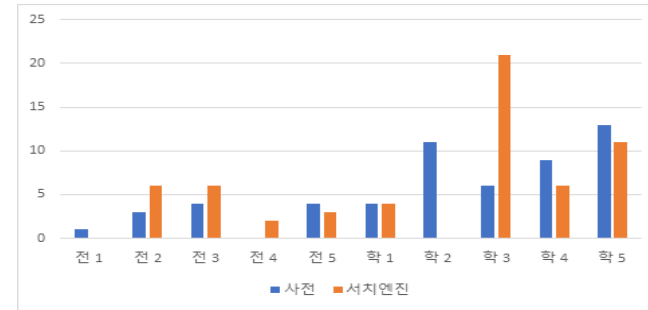
않는 검색이 빈번하다.

학생은 의미 찾기 과정에도 검색이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구글에서 ‘economy synchronized’를 검색하고 ‘meaning’을 추가해서 다시 검색한다든가, 구글에서 ‘spending at a healthy clip meaning’을 검색한 뒤 ‘at a good clip’을 검색하고, ‘구렁’, ‘호재’, ‘호황’ 등 단어 선택을 위해 국어사전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의 경우 의미 확인에 이중언어사전 외에 구글과 단일언어사전(국어사전, 영영사전) 등을 더 활발히 활용하면서 여러 차례의 검색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단일언어사전의 참조는 두 번으로, 전문가 2가 맞춤법, 의미 확인을 위해 국어사전을 참조했고 전문가 3은 의미 확인을 위해 영영사전을 참조하면서 긴 검색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생의 경우 의미 찾기 과정에서 이중언어사전 외에 서치엔진과 단일언어사전을 함께 쓰고, 표현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검색어를 바꿔가며 확인하고 있으므로 여러 차례의 검색이 연달아 발생하는 반면 전문가는 대부분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검색이 더 신속하게 끝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은 의미 찾기와 표현 찾기, 표현 확인에서 검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학생은 검색을 통해 결정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굴러가다’를 쓰기 위해 여러 번 검색하고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작동하다’로 검색한 후 수정하거나, ‘경제’ 앞에 수식어도 ‘강한’, ‘굳건’, ‘양호한’ 중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검색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텍스트는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은 전형적 은유가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미 찾기를 위한 검색이 많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모국어 방향의 은유 번역 과정에도 학생의 경우 표현을 찾고 확인하기 위한 검색이 빈번하다는 점이다(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검색이 없었던 참가자인 학생 2는 예문 검색 결과를 대부분 수용했다).

검색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검색 채널에 따라 사전과 서치엔진으로 나누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⁶⁾.

〈그림 6〉 검색 채널



학생이 검색을 더 자주 하고 있으므로 빈도만 볼 때는 학생의 사전 활용이 더 많았으나, 사전과 서치엔진의 활용 빈도를 비교해서 볼 때 학생이 전문가에 비해 사전을 더 크게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문가는 두 명(1, 4)을 제외하면 사전과 서치엔진을 모두 활용하고 있고, 학생의 경우도 사전만 쓰는 한 명(2)과 서치엔진을 크게 선호하는 한 명(3)을 제외하면 다른 세 명은 사전과 서치엔진을 큰 차이 없이 골고루 활용하고 있다.

사전 선호도에서 전문가와 학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생과 달리 전문가는 사전 검색 결과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은 ‘ace in the hole’을 번역할 때 국어사전을 참조한 한 명을 제외하고 세 명은 영한사전 검색 결과인 ‘비장의 무기’로 번역했고 다른 한 명은 ‘무기’와 ‘비기’를 오가다가 ‘비기’로 번역했다. 전문가도 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했지만, 검색 결과를 채택한 것은 한 명뿐이었으며, 다른 참가자들은 ‘에이스 카드’, ‘비장의 카드’, ‘강력한 카드’ 등 ‘카드’라는 표현을 선택했고 ‘카드’를 선택했던 참가자도 나중에 다시 ‘유리한 입지’라는 말로 바꾸었으며, ‘비장의 무기’라고 번역했던 참가자도 이후 ‘승부수’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a healthy clip’의 번역 과정에서도 학생 다섯 명 중 세 명은 영한사전의 예문 검색 결과를 통해 ‘빠르게’로 번역했고, 두 명은 영영 사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로 번역했다. 반면 전문가는 사전 검색 결과를 반영한 참가자가 없었으며 ‘한창’, ‘건조’(2명), ‘증가’, ‘원활하게’로 번역했다. 학생의 경우 사전 검색 결과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은유 번역 결과물이 비슷한 경우가 더 많았던 반면, 전문가는 사전 검색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고 수용했다가

6)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서치엔진으로 분류하였으며 구글에서 ‘meaning’을 덧붙여 찾은 경우 사전 검색의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서치엔진으로 분류하였다.

도 이후에 다시 고치는 경우가 많아 더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기름칠이 된 기계(well-oiled machine)’ 번역에 활용된 추가 수식어는 학생의 경우 검색 결과에 나온 ‘순조롭게’ 외에는 ‘맞물려’만 나타났으나, 전문가의 경우 사전 검색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풀어쓰면서 ‘매끄럽게, 일사불란하게, 서로 매끄럽게 맞물리며, 효율적인, 치우침 없이, 일률적인, 성장세’ 등 더 다양한 수식어가 나오고 있다.

서치엔진의 선호도에서도 학생과 전문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검색어의 활용 방식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학생의 경우 자신이 쓰려는 표현을 서치엔진에서 확인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전문가는 자신이 쓰려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관련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을 찾으려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즉, 학생은 자신이 쓰려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빈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이 많았으나, 전문가는 해당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을 찾으려는 검색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문가 2는 ‘at the top of’를 번역하기 위해 ‘유럽 중국 일본 경제 성장 둔화 미국이 가장’이라는 긴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훑어보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로 번역하였다. 또한 ‘at a healthy clip’을 번역하기 위해 ‘경제 성장 요소 투자 소비’를 검색하여 검색 결과에서 나오는 표현을 살펴보고 ‘소비가 견조’로 번역했다. 전문가 5도 ‘pick up speed’의 번역에서 ‘경제 회복 속도’를 검색해서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학생은 자신이 쓰려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어로 바꿔 다시 검색하는 경우가 빈번한 반면, 전문가는 관련 맥락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를 찾거나 떠올리기 위해 검색엔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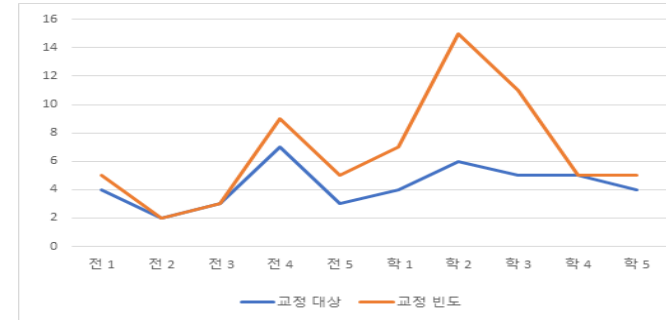
둘째, 전문가의 경우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는 혼합 검색어도 자주 활용하는 참가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문가 3은 구글에서 네 번 검색했는데, 세 번이 혼합 검색어(“ace in the hole” 에이스, “strong economy” 경제, “engine of economy” 경제)에 해당되었다. ‘engine’의 번역 과정에서 혼합 검색어를 통해 구글에서 검색을 한 뒤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기사 페이지를 보고, 이를 활용해 ‘경제의 원동력’으로 번역하였다. 전문가 2 역시 ‘well oiled machine 기계’를 검색했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은유의 경우 혼합 검색어를 통해 다른 텍스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기존 번역 결과물을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

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검색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4.3 교정 과정

우선 참가자에 따라 교정 대상 수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교정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7〉 교정 대상과 교정 빈도



교정 빈도를 보면 학생은 교정 대상 수에 비해 교정 빈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는 두 번 이상 다시 고친 경우는 2건밖에 없었으나, 학생의 경우 9건이 나타났고 전문가와 달리 3-4번 다시 고친 경우도 있었으며 많게는 7번이나 고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의 경우 대부분 한 번, 드물게 두 번 고친 경우가 있었으나, 학생의 경우 하나의 은유적 표현에서 더 여러 번 고쳐 쓴 것이 많다는 것이다.

학생이 가장 여러 차례에 걸쳐 고친 부분은 ‘ace in the hole’이다. 전문가의 경우 두 명만 교정을 했고 각 한 번씩만 교정을 했으나, 학생은 네 명이 교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두 명은 4번, 7번이나 교정을 했다. 제목에 포함된 은유임을 고려할 때, 은유적 표현이 제목이 나올 경우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학생의 고민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교정을 거듭하고는 있으나 전문가와 달리 ‘무기’에서 ‘카드’ 은유로 바꾼 경우는 없었으며 동일 은유로 번역했다가 다시 풀어쓰기로 바꾼 경우도 없었다. 학생 2가 한번 ‘비기’를 ‘전쟁에서 통하다’로 고쳤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비기’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교정을 통해 은

유적 표현을 비은유적 표현으로 바꾸어 마무리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생의 경우 여러 차례의 교정 속에서 은유 번역 전략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은유와 함께 나오는 서술어를 주로 고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기’는 그대로 두고 ‘무기를 꺼내들다’로 쓸지, ‘무기란 무엇인가’, ‘비장의 무기란’, ‘무기로 삼다’로 쓸지 고민하는 것이다.

전문가와 학생 모두 교정 과정에서 다른 은유로 바꾸는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풀어쓰기 과정에서 표현을 다듬는데 교정이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과 달리, 전문가는 은유로 번역했다가 이후 교정 과정에서 의미를 풀어쓰는 전략도 일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역풍’에서 ‘역효과’로 고치거나, ‘강력한 카드’에서 ‘유리한 입지’로 고치고, ‘비장의 무기’에서 ‘무역 전쟁 승부수’로 교정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교정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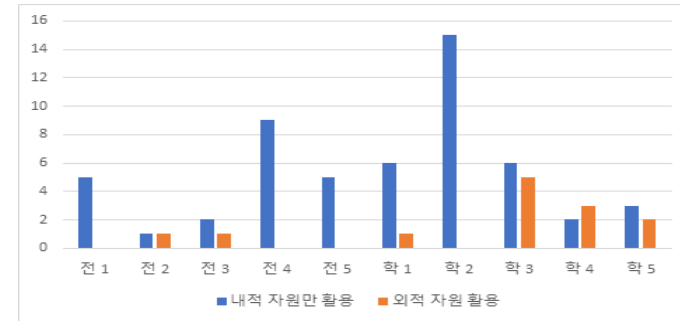
또 많이 고친 부분은 ‘at the top of the global economy’로, 전문가는 한 명만 두 번 교정했으나, 학생은 한 명이 두 번, 두 명은 세 번 교정했으며 여기에서도 학생은 서술어 표현을 자주 바꾼다. ‘최상위에 위치’와 ‘최상위를 차지’를 고민하고, ‘입지를 갖게 되었다’를 ‘공고히 하였다’로, ‘정상을 지키게 되었다’를 ‘차지했다’로 고친다. 명사도 ‘경제에서 가장’, ‘최상위권’, ‘지위’, ‘대국’, ‘강대국’, ‘주도권’,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에서 고민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는 처음부터 ‘활황기를 누리다’, ‘경제를 이끌고’, ‘정상을 차지하다’로 쓰면서 교정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고친 경우에도 ‘최고 수준’을 ‘가장 유리한’, ‘가장 높은’으로, ‘위치’를 ‘지위’로 고쳤으며 서술어를 거듭 고치는 경우는 없었다. 학생의 경우 은유 표현을 풀어써야 할 때 고민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engine’, ‘attack’, ‘war’ 등 일대일로 즉각 옮길 수 있는 명사 형태의 은유나 ‘healthy’, ‘strong’처럼 수식어로 쓰는 은유보다 동사 형태로 풀어써야 할 때 표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혜승(2004)은 은유 번역에서 전문가는 텍스트 중심으로 접근한 반면, 학생은 단어 중심으로 번역한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의 경우 ‘작동’을 ‘작용’으로, ‘경제 성장’을 ‘경제 성장 전략’으로, ‘회복’을 ‘성장’으로, ‘작동하다’를 ‘굴러가다’로, ‘호재’를 ‘호황’으로 바꾸는 등 단어 차원에서 주로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경우 ‘강력한 경제’로 번역했던 부분에 원문에 없던 정보인 ‘미국’을 추가하고, ‘회복세를 보이다’에서 ‘이어가다’로, ‘위치’

를 ‘성장세’로, ‘일관성 없는 모습’을 ‘엇갈린 방향’으로 교체하는 등 텍스트 차원에서 의미를 읽고 맥락에 맞춰 교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교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검색 활용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8〉 교정 과정에서 검색 활용 여부



전문가의 경우 교정에서 검색을 활용한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학생의 경우 더 빈번하게 활용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교정 과정에서 검색을 더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표현 교체에 검색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검색을 통한 의미와 표현 찾기를 넘어서 표현을 확인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검색 의존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검색을 통해 고친 은유적 표현을 보면, 전문가는 ‘제대로 기름질이 된’을 ‘기름을 잘 친’으로 교정한 것 외에 없으나, 학생은 ‘잘’을 ‘순조롭게’, ‘작동하다’를 ‘굴러가다’, ‘운용’을 ‘돌아가고’, ‘부문’을 ‘엔진’, ‘호재’를 ‘호황’, ‘위협적 화살’을 ‘공격의 화살’, ‘강한 경제’를 ‘튼튼한 경제’로 고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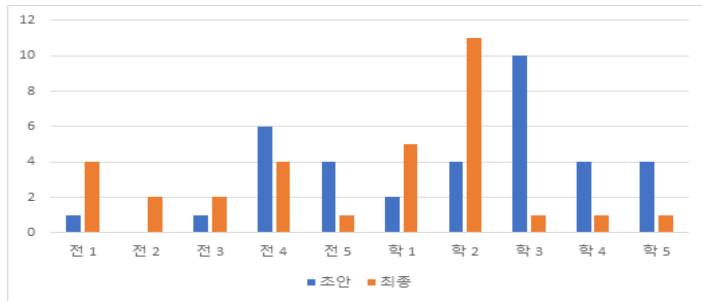
신문 기사를 실험 텍스트로 사용했고 분석 대상이 대부분 정형화된 은유이며 모국어 방향의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정 과정에서 검색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표현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은유로 바꾸거나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거나 직유에 의미를 추가하는 번역 전략이 학생에게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전문가에 비해 학생은 풀어쓰기에 소극적인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이혜승 2004; Jensen 2005; Massey and Ehrensberger-Dow 2017) 번역 전략에 따라 인지적 부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

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이트래킹 기반 연구(Sjørup 2011: 197-214)에서도 번역 전략에 따라, 즉 은유를 은유로 번역할 때보다 풀어서 번역할 때 인지적 노력이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지적된 바 있다.

김순영(2005: 99)은 은유를 풀어 번역할 경우 원문에서 의도한 함축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의미 손실, 오역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도 처음부터 은유를 풀어 번역한 경우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전문가의 경우 ‘engine’을 검색이나 교정 없이 ‘주요 지표’, ‘경제 주요 주체’로 풀어서 번역했다. 하지만 학생은 이와 같이 바로 풀어서 번역할 때 문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ace in the hole’을 ‘전쟁 구렁 속 호재를 기대하는 트럼프’로 번역하였다가 검색 후에 ‘전쟁 구렁 속 호황 누리는 트럼프’로 교정하였고, ‘strong economy’를 ‘경제 성장’으로 번역했다가 ‘경제 성장 전략’으로 번역하면서 원문 의미와 멀어지고 있다. 학생의 경우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는 것에 좀 더 소극적이며, 교정 과정에서 은유를 다시 풀어쓰는 경우도 많지 않고, 처음부터 풀어쓸 경우 자칫 오역이 발생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초안과 최종 교정 단계에서 언제 고쳤는지, 교정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나누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9〉 교정 지점



교정 지점에서 전문가 중 세 명은 주로 최종 교정 단계에서 교정했으나 다른 두 명은 초안 작성 단계에서도 활발하게 교정했다. 반면 학생 중 두 명은 최종 교정 단계에서 주로 교정하였으나 다른 세 명은 초안 작성 단계에서만 대부분 교정했다. 다만 최종 교정 단계에서의 은유 교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

학생의 경우도 그 중 대부분이 제목 은유 교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학생의 경우 최종 교정에서 은유가 집중적인 교정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험 텍스트에서는 낯설거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가 없었고 실험 여건상 드로어 타임(drawer time)을 두고 나중에 다시 교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교정 지점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안을 끝내고 최종 교정 단계에서 고쳐 쓰는 은유적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 텍스트와 실험 상황을 달리하여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번역 경력에 따라 은유 번역 결과물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그리 흥미롭거나 놀랍지는 않다.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색과 교정의 대상과 빈도, 방법에서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문기사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가와 학생의 차이를 검색과 교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은유 번역 과정에서 검색에 더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보다 대체로 더 많은 은유적 표현을 대상으로 검색했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을 검색하는 학생도 있었다.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고 그대로 바뀌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표현을 검색했고, 맥락 속에서 풀어쓸 수 있는 경우에도 검색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학생은 검색 대상 수에 비해 검색 빈도가 높았다. 의미 찾기 과정에서 이중언어사전 외에 서치엔진과 단일언어사전을 함께 활용하고, 표현 찾기와 확인 과정에서도 서치엔진에서 검색어를 바꿔가며 표현을 연이어 검색했기 때문이다. 익숙한 은유적 표현이 담긴 텍스트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도 표현을 찾고 확인하기 위한 검색이 많았고 검색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학생의 경우 경제 상태나 움직임 표현하는 수식어와 서술어에서 교정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전문가는 하나의 은유를 한 번 이상 고친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학생은 여러 차례 고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하지만 교정을 통해 은유 번역 전략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은유와 함께 나오는 서술어만 주로 고치고 있었다. 전문가는 은유로 먼저 번역했다가 교정하면서 의미를 풀어쓰는 전략도 나타났으나 학생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학생의 은유 번역을 다룬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와 학생의 은유 번역 전략을 비교한 기존 연구에서 경력에 관계없이 같은 은유로 옮기는 번역 전략이 대체로 가장 많았지만 전문가는 학생에 비해 풀어쓰기가 더 많이 나타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가 은유적 표현이 나왔을 때 풀어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학생은 풀어쓰기에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생은 풀어써야 하는 부분에서 검색과 교정이 모두 크게 늘어났는데, 의미를 풀어서 텍스트 차원에서 해당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은유로의 번역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둘째, 사전에서 학생은 주로 의미를 찾지만 전문가는 표현을 떠올리려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으나, 검색 범위를 인터넷으로 확대하면 학생은 의미 찾기뿐 아니라 표현 찾기도 검색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국어 방향의 번역에서도 표현 선택에 검색을 빈번하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의 실험 텍스트에는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은 은유가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가와 학생 모두 생산 차원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낯선 은유에서는 학생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더 시간을 쓸 수도 있으나, 상투적 은유는 전문가와 학생 모두 생산 차원에 인지적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은 생산 차원에서 더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번역 교육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학생의 경우 모국어 방향의 은유 번역에서 의미 파악뿐만 아니라 표현을 찾고 확인하는데 검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검색은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 물론 검색 과정에서 학생의 배경 지식이 확장될 수 있으며, 번역은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번역 문제에 부딪칠 때 습관적으로 즉각 검색부터 시작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내려는 노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적절하지

못한 사전 검색 결과까지도 채택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적어도 해당 지점에서 검색이 반드시 요구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검색 결과를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 판단도 필요하다.

둘째, 전형적 은유도 의미를 풀어써야 하거나 직유에 의미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수업에서 충분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학생의 경우 교정 과정에서 은유를 다른 은유로 교체하거나 풀어쓰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은유 번역 전략을 텍스트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처음부터 풀어쓰기를 하지 말고 초안을 마친 후 풀어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앞으로 포스트 에디팅의 수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본 연구의 실험 텍스트를 구글 번역을 활용하여 그 결과물을 살펴보았는데, 일대일 단어 대응이 어렵고 맥락을 고려해 의미를 풀어써야 하는 부분은 포스트 에디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마승혜(2014: 135)는 포스트 에디팅에서 기계 번역된 은유 표현에 의미를 추가하는 것을 효율적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이와 같이 의미를 풀어 추가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은유 번역을 과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10명의 참가자와 하나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참가자의 회상구술을 통한 추가 데이터 없이, 컴퓨터에 기록된 움직임만 관찰했다는 점에서 분석에 한계가 크다. 향후 참가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TAP, 회상구술, 아이트래킹 등 다각화된 데이터를 통해 은유가 번역 경력, 언어적 배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얼마나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더욱 의미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7) 2020년 2월 5일 구글 번역 결과, ‘strong economy’는 강한 경제, ‘trade war’는 ‘무역 전쟁’, ‘attack’은 ‘공격’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ace in the hole’은 ‘구멍에 있는 트럼프의 에이스’, ‘healthy clip’은 ‘건강한 클립을 소비했을 때’, ‘well-oiled machine’은 ‘기름이 잘 통하는 기계’, ‘synchronized’는 ‘경제 엔진은 거의 동기화되지 않았다’, ‘stronger hand’는 ‘더 강한 손길’, ‘at the top of the global economy’는 ‘세계 경제의 최상위에 서게’로 번역되었다.

참고문헌

- 권연진 (2016) 「경제담론 상에 나타난 은유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언어 과학』 23(2): 1-19.
- 김순미 (2003) 『영한번역에서의 ‘은유’에 관한 연구 -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영 (2005) 「은유표현의 풀어서 번역하기(paraphrase) 방식이 SL과 TL의 맥락 효과에 미치는 영향: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영어영문학 연구』 47(3): 87-101.
- 김순영 (2008) 「문학 작품 속의 감정은유 번역」, 『번역학연구』 9(3): 7-26.
- 노진서 (2007) 「한-영 시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번역 문제 - 사랑에 관한 개념적 은유 표현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31-53.
- 동소현 (2016) 「한일번역의 은유 양상에 관한 고찰」, 『日語日文學研究』 96(1): 3-27.
- 마승혜 (2018) 「기계번역의 외연 확대. 신문기사 특정 은유표현 포스트 에디팅 전략 모색」, 『번역학연구』 19(2): 117-145.
- 박윤철 (2013) 「영한 영화자막에 나타난 은유번역에 관한 연구」, 『통번역교육 연구』 11(1): 189-212.
- 박지수 (2016) 「한영 속담 번역에서의 은유 처리 - 관용적 등가로서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31-55.
- 송현선 (2015) 「한-중 은유 번역과 번역 전략 연구」, 『中國研究』 63: 243-255.
- 신진원, 박기성 (2011)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129-155.
- 유선영 (2015)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은유와 은유 번역 분석 - 대통령과 장관 연설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Studies in Linguistics』 37: 201-226.
- 원종화 (2008) 「The Effects of Strengths and Familiarity of Metaphors on the Translating Process」, 『번역학연구』 9(3): 201-225.
- 이승아, 배지연 (2011) 「시사 잡지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표현의 번역 전략: 영한 병렬 코퍼스에 기반한 분석」, 『번역학연구』 12(3): 169-196.
- 이혜승 (2004) 「노-한 은유 번역과 번역전략 연구 - 과정과 결과의 통합적 고

- 찰」,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1): 155-178.
- 이혜승 (2006) 「정치텍스트의 특성과 통역교육 -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121-139.
- 조운익 (2013) *The Role and Translation of Animal Metaphor in Discourse: A Relevance Perspective*,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ung, Siaw-Fong (2005) 'Market metaphors: Chinese, English and Malay', in *The Proceedings of the 19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19)*, Taipei: Academia Sinica.
- Fuertes Olivera, Pedro (1998) 'Metaphor and Translation: A Case Study in the Field of Economics', in Purificacion Fernández Nistal and Jose Maria Bravo Gozalo (eds) *La Traducción: Orientaciones Lingüísticas y Culturales*, Valladolid: Servicio de Apoyo a la Enseñanza, 79-95.
- Göpferich, Susanne and Jääskeläinen, Ritta (2009) 'Process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Competence: Where are we and where do we need to go?',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9(2): 169-191.
- Jakobsen, Arnt Lykke, Jensen, Kristian Tangsgaard Hvelplund and Mees, Inger M. (2007) 'Comparing Modalities: Idioms as a Case in Point', in Franz Pöchhacker, Arnt Lykke Jakobsen and Inger M. Mees (eds) *Interpreting Studies and Beyond*, Vol 35, Copenhagen: Samfundslitteratur, 217-249.
- Jensen, Astrid (2005) 'Coping with Metaphor: A Cognitive Approach to Translating Metaphor', *Hermes, Journal of Linguistics* 35: 183-209.
- Koglin, Arlene (2015)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gnitive Effort Required to Post-edit Machine Translated Metaphors Compared to the Translation of Metaphors', *Translation & Interpreting* 7(1): 126-143.
- Mandelblit, Nili (1996) 'The Cognitive View of Metaphor and its Implications', in Marcel Thelen and Barbara Lewandowska-Tomaszczyk (eds) *Translation and Meaning*, Maastricht: Hogeschool, 482-495.
- Massey, Gary and Ehrensberger-Dow, Maureen (2017) 'Translating Conceptual Metaphor: The Processes of Managing Interlingual Asymmetry', *Research in Language* 15(2): 173-189.

- Schäffner, Christina and Shuttleworth, Mark (2013) 'Metaphor in Translation: Possibilities for Process Research', *Target* 25(1): 93-106.
- Schäffner, Christina (2017) 'Metaphor in Translation', in Elena Semino and Zsófia Demjén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Metaphor and Language*, London, England: Routledge, 247-262.
- Sjørup, Annette C. (2008) 'Metaphor Comprehension in Translation: Methodological Issues in a Pilot Study', in Susanne Gopferich, Arnt Lykke Jakobsen and Inger M. Mees (eds) *Looking at Eyes. Eye-Tracking Studies of Reading and Translation Processing*, Copenhagen: Samfundslitteratur, 53-77.
- Sjørup, Annette C. (2013) 'Cognitive Effort in Metaphor Translation: An Eye-tracking and Keylogging Study', MA dissertation, Copenhagen: Copenhagen Business School.
- Tirkkonen-Condit, Sonja (2002) 'Metaphoric Expressions in Translation Processe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3(1): 101-116.
- Zheng, Bingham and Xiang, Xia (2014) 'The Impact of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in the Processing of Metaphorical Expression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9(1): 5-24.

[Abstract]

A Study on Differences of Professional and Student Translators in Metaphor Translation Process

Kim, Ja-gye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differences in professional and student translators during metaphor translation process, with a particular focus on searching and revision activities. An experiment is conducted on five professionals and five students who are asked to translate a newspaper article from English to Korean. The translation process is recorded with keystroke logging and screen-recording software program. Analysis results show that students search a larger number of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rely more on searching to verify the adequacy of TT expressions as well as to find ST meaning. Students more often than not revise some metaphorical expressions more than twice, though professionals rarely do so. Interestingly, students are frequently involved in searching and revision activities during paraphrasing, suggesting that they may have relatively more difficulties in paraphrasing metaphors.

▶ Key Words: translation process, metaphor translation, translation education, revision, searching

▶ 주제어: 번역과정, 은유번역, 번역교육, 감수, 검색

김자경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시간강사

vandi98@naver.com

관심분야: 번역과정, 은유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1일